

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광주·전남서도 연관 범죄 잇따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광주 지난해 3895명 치료...지자체·의료기관 등 적극 대책 나서야

조현병을 앓던 40대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묻지마 정신 질환 범죄'에 대한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조현병 환자와 연관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광주에서 10

만 2463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사람도 3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인력·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등을 가족이나 환자 스스로 해결하는 게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인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관심·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 데이터베이스화와 전담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무담당자 1명이 정신·자살 등 여러 분야를 관리하는 등 업무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 데 힘듦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도 "현 시스템상 정신 질환 진료 받은 사람은 가족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치구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엔 현실적으로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관련 사건·사고도 잇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1일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남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여성과 남성은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인 7월 8일 오후 7시30분께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A씨가 광주시 광산구 한 병원 3층 폐쇄병동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병원을 탈출한 김씨는 18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광산구·서구·동구 등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다, 다음날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장성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5년을 받아 광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살인 전과가 있던 A씨가 조금이라도 늦게 붙잡혔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

다. 다만, 이 같은 일부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범죠훈만 보면 일반인보다 훨씬 적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일 뿐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된다"면서 "다만 인권 등의 문제로 현 체계상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입원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 이 절차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조현병 환자 흉기·방화 난동 5명 사망

진주서 새벽 무차별 칼부림
12살 여아까지 살해...13명 부상
2010년 보호관찰형 받기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수년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후 안씨는 2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 자리를 잡고 대피하는 주민이 내려오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안씨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휘발

유를 마셨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흉기 2자루의 출처도 파악중이다. 흉기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50대 여성 각 1명, 19세·12세 여학생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씨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20㎡를 그을렸다. 경찰은 안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쏘지만 안씨 몸에 제대로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새벽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

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달간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안씨가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 관할형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었다. 경찰은 또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안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입수했다. 당시 이 병원은 안씨에게 상해 불명의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경찰은 안씨가 2011년부터 정신분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문서도 확보했다. /연합뉴스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으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남신문·성승근 기자

안타까운 가족 참극...4명 사망·부상

17일 오전 발생한 경남 진주시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단란했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가족 구성원 중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인 A(12)양 가족은 A양과 할머니(65)가 범인 안씨가 휘둘러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양을 구하기 위해 안씨를 막아선 A양의 어머니(41)도 흉기에 등을 찔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사촌 언니는 위험을 피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진주시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양의 사촌 언니는 "불이 난 것을 알고 동생(A양)과 함께 4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가 동생을 잡아채 흉기로 찔렀다"며 "그 모습을 본 A양 어머니가 딸을 살리려고 하다가 상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사촌언니는 "동생(A양)이 며칠 뒤 수학 여행을 간다며 좋아했는데, 아무 죄 없는 착한 아이가 이렇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A양의 할머니는 A양의 아래층인 3층에 살고 있었으며, 흉기에 찔려 숨진 채 1층 입구 쪽에서 발견됐다. A양과 함께 사는 친언니(15)는 수영 훈련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합숙하고 있어 화를 면했다.

막을 수 있었는데...1년전부터 수차례 난동


보름전 경찰 신고...적극 대처 안해
묻지마 칼부림을 한 안씨는 1년 전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 바로 위층에 살다 이번에 흉기에 찔려 숨진 최모(19)양은 평소에도 안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위협을 받아와 지난달 집 앞에는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안씨의 위협적인 행동과 난동은 고소란히 카메라에 잡혔다. 안씨가 지난달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최양 뒤를 쫓는 모습이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장면 등이다. 이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안씨는 승강

기 등에 인분과 오물을 투척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렸다. 안씨는 지난 1월엔 주민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하기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주민들은 최근 이런 안씨의 계속된 위협과 난동으로 보름 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와 파출소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져 있다. 주민 강모(54)씨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 박유천 체모 제도...경찰, 증거인멸 의심

성다발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경찰의 마약 반응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각종 의혹이 제기.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자택과 차량 2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씨의 체모 채취를 위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미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것. /연합뉴스

○박씨는 "평소 콘서트 등 일정을 소화할 때 체모를 제모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요 체모의 경우 1년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마약 혐의 피의자 중 일부는 수사에 대비해 머리를 염색하고 체모를 제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박씨의 마약투약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박씨의 모발과 다리털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반응 감정을 의뢰.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다가구(원룸)]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364㎡(110,1평) 건물:566,11(171,2평) 감정가18억1천7백만원 최저가 5억7천2백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70%) 17억3천5백만원
- ★ [근린주택] 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정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70%) 3억7천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주유소] 서구 농성동 토지 8131,8㎡(246,174평) 건물 320,23㎡(278,37평) 감정가 15억5천만원 최저가 15억5천만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